

“죽기 전 북녘 가족 만나게 마지막 소원”

오늘 남북 정상회담...광주·전남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바람

서옥렬씨, 60여년간 보내지도 못하는 편지 쓰며 외로움 달래
이광근씨, 고향 갈 날만 기다리며 결혼 않고 50여년 홀로 생활
국내 19명...송환추진위, 남북정상회담 계기 정부에 복송 촉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국내 최고령 장기수 서옥렬(90·광주시 북구 각화동)씨의 꿈은 하나다. 북에 있는 가족을 딱 한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다.

그는 1961년 남파 간첩으로 붙잡힌 후 60여년 동안 가족에게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다.〈광주일보 2017년 7월21일자 6면〉

30대 청년으로 가족 곁을 떠난 그는 어느덧 백살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고, 현재 폐에 물이 차는 등 병이 깊어져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최근 병색이 깊어진 서씨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가족상봉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잘 성사돼 북에 있는 가족과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소망했다.

26일 ‘장기수극 양심수 서옥렬선생 송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현권 서정교희 목사, 이하 송환추진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서씨와 이광근(73·광주시 서구 양동), 이두화(여·90·전남) 등 모두 3명이다.

1928년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어난 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인민군에 편입돼 북으로 갔다.

김일성종합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교원이 됐고, 같은 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 1961년 8월 북한 공작원으로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북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다.

평양이 고향인 이광근씨는 평양통신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인민군에 복무하다 공작원으로 차출됐다. 22살이 되던 해 남한에 내려온 그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1967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22년을 복역했다.

이씨는 다시 북으로 가겠다고 5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광주에 우수선업에 종사하며 외롭게 살고 있다. 북에는



서옥렬씨



이광근씨

유일한 혈육인 누나가 있다.

환경남도 출신인 이두화씨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사(朝鮮史)를 전공하던 중 대학 3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치공작도당학교 강사로 무안군에 파견돼 현재까지 전남 곳곳을 돌며 생활하고 있다.

이씨는 전쟁이 끝난 1954년 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고 7년의 수감생활을 한 후 1958년 풀려났다. 이씨도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광주·전남 3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2000년 9월 2일 진행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1차 송환 이후 2차 송환 대상자 33명 중 14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19명도 대부분 고령인데다가 고문에 의한 후유증과 투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등 일부 장기수들은 유신시절 고문을 동반한 반강제 전향 공작을 못 이겨 준변서약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1차 송환 때 포함되지 못한 이유다.

송환추진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현권 송환추진위 공동대표는 “그동안 만난 비전향 장기수들은 평생 외로운 삶을 살며 오직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수들이 꼭 가족을 만나길 바라며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반도기 손도장 찍기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한반도기 손도장 찍기’ 행사가 열렸다. 북구 직원들과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손도장을 찍어 대형 한반도기(6mx10m)를 제작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준하 석방 요구로 징역 15년...전 야당간부 44년만에 무죄

고(故)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보(사망 당시 67세)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발

동 요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됐고 장준하 선생이 구속되자 당 간담회를 개최해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이후 정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연황뉴스

돈 봉투 살포하고...음식 제공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적발 잇따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음식 제공 등 불법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수사관들을 A씨의 자택과 선거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에서 A씨 측이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있다며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26일 개업식

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암군수 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에 선거구민 1000여명을 초청해 900만원 상당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을 먹은 개업식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일방적 매맞기 포커게임 벌인 ‘못된 선배’

후배들 폭행한 20대 구속

강압적으로 매맞기 도박을 진행하며 후배들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후배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이모(22)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자신의 원룸에서 김모(19)군의 머리를 빗자루 등으로 내려치는 등 후배 3명을 폭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김군은 머리에 심한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후배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후배들을 불러 함께 포커게임을 하라고 했고 자신이 이기면 후배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군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보복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이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패소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

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의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실격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연황뉴스

“음란 영상 더 보내”...20대 여성 협박한 회사원 ‘철창행’



○~20대 회사원이 직접 촬영한 자위 영상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20대 여성을 협박했다가 철창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 1월 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만난 B(여·20)씨에게 35차례에 걸쳐 자위행위 등이 담긴

영상을 받은 뒤 “추가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내주면 2억2700만원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A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음란 동영상도 발견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매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축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당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7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